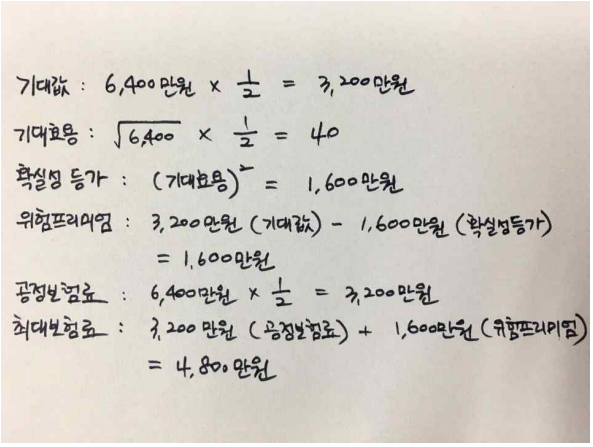
# 2016년 7급 서울시 공무원 경제학 문제 해설 권박사

**1. 정답 2번**




**2. 정답 4번**

장기 총공급곡선은 노동인구의 증가, 자본의 축적량 증가 그리고 기술진보에 의해 우측으로 이동하고 반대가 되면 좌측으로 이동한다. 예상 물가수준의 변동은 단기 총공급곡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3. 정답 4번**

TC = 100 + 20Q 에서 TFC = 100, TVC = 20Q 이다.
AVC = 20 이고 MC = 20 이다. 총고정비용 TFC 는 생산량과 관계없이 항상 100이 되므로 'ㄱ' 문항은 틀린 문항이고 나머지는 모두 맞는 문항이다.

**4. 정답 3번**

재화 X의 가격이 상승하면 대체관계에 있는 재화는 수요가 증가하므로 수요곡선이 우측 이동하여 이 재화의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보완관계에 있는 재화는 수요가 감소하므로 수요곡선이 좌측 이동하여 이 재화의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감소한다.
X재화가 정상재라면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모두 부호가 음(-)이므로 수요법칙이 항상 성립한다. 그러므로 X재의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한다. 만일 X재가 열등재 중에서 기펜재라면 가격상승으로 수요량이 증가할 수 있으나 기펜재가 아닌 열등재라면 가격상승으로 수요량은 감소한다.

**5. 정답 4번**

확대 통화정책으로 LM곡선이 우측이동하면 이자율이 하락한다. 이자율의 하락은 투자를 비롯한 민간지출의 증가를 가져와 국민소득을 증가시킨다.
국내 이자율이 하락하고 해외 이자율이 변동 없으면 자본유출로 외환의 공급곡선이 좌측 이동하여 환율이 상승한다. 환율상승, 즉 평가절하는 수출을 증가시키고 수입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수출에 긍정적 여향을 준다.

**6. 정답 2번**

균제상태(steady – state)란 동태적 균형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경제성장 과정에서 자본과 노동이 완전고용 되면서 성장하는 경로를 말한다.

기술수준이 높을수록, 즉 기술진보가 발생하면 1인 당 국민소득의 수준은 이전에 비해 높아지나 증가율이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니다. 일본과 같은 선진국은 기술수준이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국 보다 높다. 1인 당 국민소득 수준은 일본이 중국 보다 높으나 그 증가율은 개발도상국인 중국이 일본에 비해 높다.

**7. 정답 3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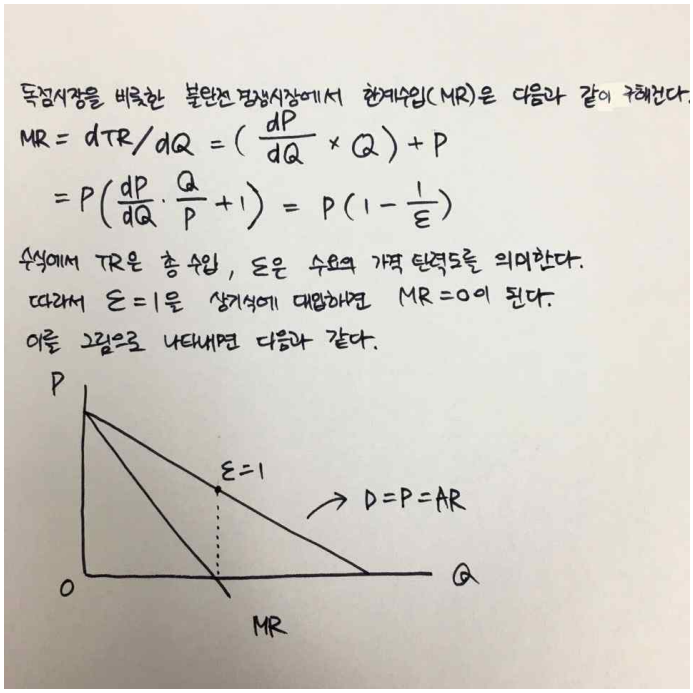
실업은 크게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으로 구분된다. 자발적 실업은 마찰적 실업과 탐색적 실업으로 구분되고 비자발적 실업은 경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으로 나누어진다.

자연실업률은 완전고용 하의 실업률을 말하는 것으로 자발적 실업만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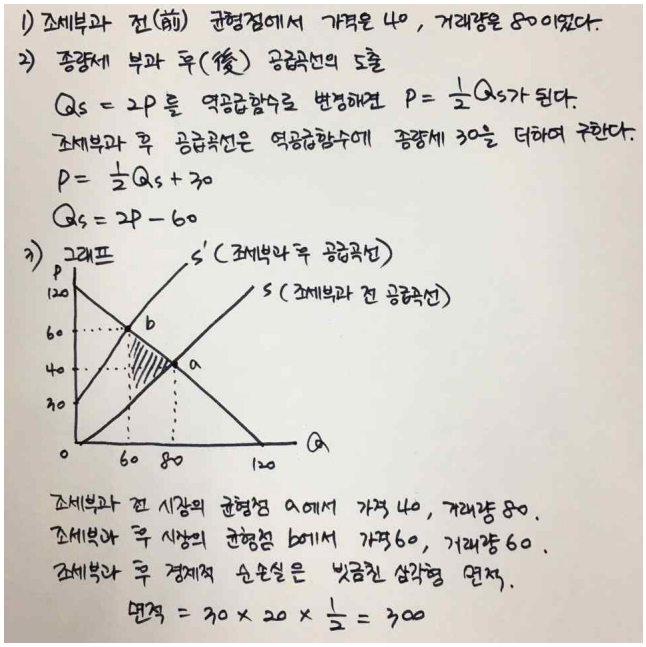
**8. 정답 1번**

투자의 이자율 탄력도가 비탄력적 이면 IS곡선은 수직선,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도가 탄력적 이면 LM곡선은 수평선에 가깝게 된다. 그리고 IS곡선이 수직선, LM곡선이 수평선에 가깝게 될수록 재정정책의 정책효과는 커진다. 반대로 IS곡선이 수평선, LM곡선이 수직선에 가깝게 될수록 금융정책의 정책효과가 커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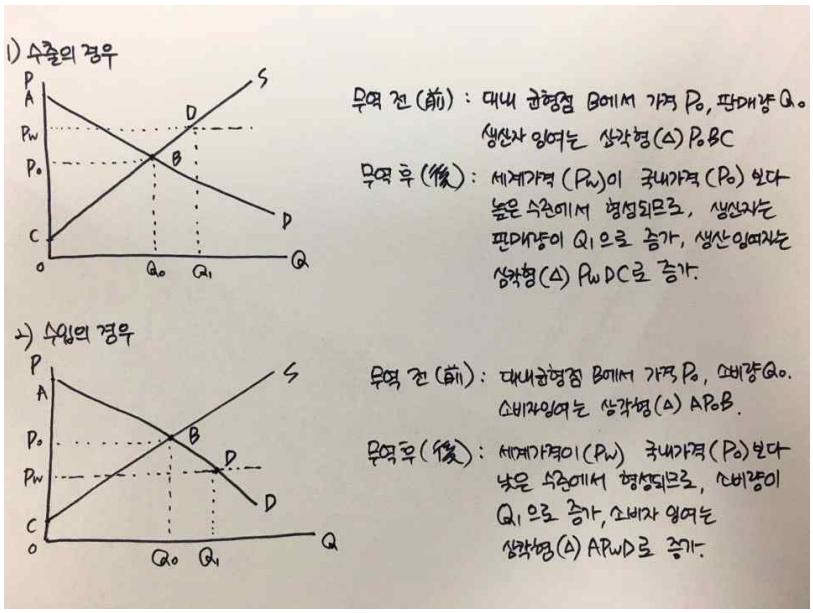
**9. 정답 3번**



10. 정답 1번




11. 정답 4번




12. 정답 3번

민간저축의 방정식은 Y - T - C이다. 국민소득 Y와 세금 T가 고정된 상황에서 소비 C가 감소하면 민간저축은 증가한다.

정부저축의 방정식은 T - G이다. 세금 T가 고정된 상황에서 정부지출 G가 증가하면 정부저축은 감소한다.

**13. 정답 4번**
통화정책의 일반적 정책수단에는 공개시장조작, 재할인율, 지급준비율 정책이 있다. 공개시장에서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입하거나 지급준비율과 재할인율을 인하시키면 통화량이 증가하게 된다. 반대가 되면 통화량은 감소한다.

**14. 정답 2번**
GDP디플레이터 = 명목GDP / 실질GDP이다. 이 식을 실질GDP를 기준으로 변경하면 실질GDP = 명목GDP / GDP디플레이터가 된다. 따라서 명목GDP가 증가하거나 GDP디플레이터가 감소하면 실질GDP는 증가한다.

**15. 정답 1번**
노동수요는 생산물 수요와는 달리 파생수요의 성격을 가진다. 생산물 수요가 증가하면 노동수요는 증가하고 반대로 생산물 수요가 감소하면 노동수요는 감소한다.
한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한식 요리사와 같은 노동수요는 증가하게 된다. 노동의 수요곡선이 우측 이동하면 한식 요리사의 임금은 상승하고 고용량도 증가한다.

**16. 정답 3번**
국민소득의 방정식 Y = C + I를 이용하여 균형 국민소득을 구하면 7,500조 원이 된다. 투자승수를 1/1-MPC 식에 대입하여 구하면 2.5가 된다. 따라서 독립투자 400조 원이 증가하면 국민소득은 2.5배인 1,000조 원이 증가한다.

**17. 정답 1번**
선별과 신호발송은 역선택을 해결하는 방안들이다. 선별이란 정보를 갖지 못하거나 적게 가진 경제주체가 거래 상대방의 정보를 수집하여 역선택을 방지하고자 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보험계약자의 건강상태를 파악하는 행위를 말한다. 건강진단 결과 보험가입자의 건강상태가 매우 불량하면 보험회사는 이런 가입자들의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료를 다른 사람에 비해 높게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신호발송은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이 정보를 갖지 못하거나 적게 가진 거래 상대방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중고차시장에서 중고차를 매매하는 회사가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고객에게 중고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18. 정답 4번**
새고전학파와 새케인즈학파는 모두 합리적 기대를 통해 경제주체들이 미래를 예측한다고 가정한다. 새고전학파는 정부의 예상된 정책시행은 단기에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부작용만 초래한다고 한다. 단 예상되지 못한 정부의 정책시행은 단기적으로 정책효과가 발생하나 장기에는 그 효과가 소멸하면서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새케인즈학파는 예상된 정부정책의 시행은 시장가격의 경직성으로 단기에 그 정책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여 새고전학파와는 다른 견해를 제시하였다. 새케인즈학파를 비롯한 케인즈학파는 단기에 경기불황을 극복하는데 있어 정부정책의 효과를 주장한 학파들이다. 따라서 장기는 이들 학파들의 관심사와는 거리가 멀다.

**19. 정답 2번**

자연실업률 =  실직률 / (실직률 + 취업률) 로 구한다. 문제에서 실직률이 2%이고, 취업률은 14%이다. 이들을 상기 식에 대입하여 자연실업률을 구하면 12.5%가 된다.

**20. 정답 3번**

외부효과는 어떤 경제주체의 소비나 생산 활동으로 다른 경제주체의 후생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외부효과의 존재가 시장의 실패를 발생시키는 이유는 외부효과로 다른 경제주체의 후생에 영향을 주나 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